

한국 아동의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제공자의 특성*

정 소 미

최 영 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타인에게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에 대해 배워가는 아동에게 있어서 어떤 정보제공자를 더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선택적 신뢰의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최근 2-30년간 많은 연구가 서구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화 및 사회적 환경이 다른 한국에서 선택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제공자의 특성을 별도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의 선택적 신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보제공자의 특성을 성별, 연령, 지위를 포함하여 포괄적이면서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의 서구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4-5세의 한국 아동들에게 정보제공자의 연령, 성별, 지위를 비교하는 사진을 제시하고 지식을 더 많이 보유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과 실제로 새로운 물건의 이름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선택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4세는 지식 보유의 대상으로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의한 선호를 보이지 않았으나 5세 아동은 아동보다는 성인, 평범한 성인보다는 선생님의 지위를 가진 성인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흥미롭게도 남아의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지위에 대한 선택적 신뢰를 보인 반면에 여아는 지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의 선택적 신뢰가 성별에 따라 상이하며 서구권의 연구와도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선택적 신뢰, 연령, 지위, 발달, 문화적 요인, 성별 차이

* 이 논문은 정소미(2018)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 1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연구에 참여해 주신 어린이집 선생님, 학부모님, 어린이 친구들과 자극 구성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 교신저자 : 최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yochoi@cau.ac.kr

어린 아동들은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만지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영역의 많은 지식들은 직접 경험보다는 부모와 어린이 집의 선생님 같은 주변 사람들이나 책 등의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전달 받는 정보의 경우 객관성과 진실성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달받는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입문자로서의 아동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제공자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의 출처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용할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능력을 선택적 신뢰(selective trust)라고 한다(최영은, 2016).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의 선택적 신뢰에서 고려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해왔다(최영은, 2016; Corriveau & Harris, 2009a 등을 참조).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단어 학습 과정을 통해 연구되었는데, 아동에게 낯선 물건을 제시하고 그 이름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두 명의 정보제공자(예, 한 명은 특정분야의 전문가, 다른 한 명은 비전문가)가 서로 다른 이름을 제안하였을 때 아동들이 어떤 정보제공자가 주장한 이름을 선택하는지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아동들이 어떤 정보제공자를 보다 신뢰하는지 관련 요인들이 밝혀져 왔다.

이러한 요인들 중 학령전기 아동들이 고려하는 것으로 제안된 것은 정보제공자의 매력도나 복장과 같은 외적인 모습이다(Bascandziev & Harris, 2014; McDonald & Ma, 2015). 성인

들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정보제공자와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정보제공자가 처음 보는 물건에 대해 서로 다른 명칭을 제안하자 만 4.5세 아동들은 매력적인 얼굴의 정보제공자가 제안한 명칭을 높은 비율로 선호하였다(Bascandziev & Harris, 2014). 즉, 매력적인 사람이 제시한 사물의 명칭을 보다 신뢰롭게 선택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McDonald와 Ma(2015)의 연구에서도 만 4세, 6세 아동들은 티셔츠에 칭바지를 입은 정보제공자와 정장을 입은 정보제공자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더 격식 있는 복장인 정장을 입은 정보제공자를 보다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얼굴의 매력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복장과 같은 외적인 모습이 아동의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정보제공자를 선택함에 있어 아동들이 고려하는 또 다른 요소로는 정보제공자의 친숙성을 들 수 있다. Corriveau와 Harris(2009a)는 유치원 두 곳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서로 다른 두 유치원에 속한 선생님 두 명이 정보제공자로 등장하였는데, 각 선생님은 한 유치원 아동들에게는 친숙한 대상이었지만 다른 유치원의 아동들에게는 낯선 대상이었다. 두 명의 선생님은 처음 보는 물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름과 기능을 설명해주었고 아동들은 자신의 유치원 선생님 즉, 친숙한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의 신뢰는 사회적 범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학령전기 아동들은 정보의 출처를 선택할 때에 자신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범주인 내집단의 소속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성별의

정보제공자가 등장하였을 때에는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사람을 더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고 (Ma & Woolley, 2013; Taylor, 2013), 같은 인종의 사람(Shurts, Banaji, & Spelke, 2010)이나 자신의 모국어 억양(Corriveau, Kinzler, & Harris, 2013; Kinzler, Corriveau, & Harris, 2011)을 사용하는 정보제공자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선택적 신뢰는 앞치마의 색상 같이 임시적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였을 때에도 나타났고 내집단에 속한 정보제공자가 부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Elashi & Mills, 2014).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학령전기 아동이 사회적인 범주에 매우 민감하며 신뢰성 판단의 상황에도 이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아동의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정보제공자의 정확성일 것이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만 3-5세의 아동들은 정보제공자의 정확성이 어떠한지 즉, 정보제공자가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받으면 수용할 정보를 선택함에 있어 이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ch, Vauthier & Bloom, 2008; Corriveau & Harris, 2009a; Corriveau & Harris, 2009b; Jaswal & Neely, 2006; Koenig, Clement & Harris, 2004; Koenig & Harris, 2005). 예를 들어, 아동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물건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정보제공자와 틀리게 말하는 정보제공자를 보고난 후에 두 명의 정보제공자들이 새로운 물건의 명칭에 대해 서로 다른 이름을 제

안하자 이전에 정확한 정보(물건의 이름)를 제공하였던 정보제공자가 주장하는 이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Koenig, Clement & Harris, 2004).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정보제공자를 보다 신뢰하는 반응은 24개월 아동에게서도 관찰되었으며(Koenig & Woodward, 2010), 4-5세 아동들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한 후 일주일의 경과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신뢰 선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rriveau & Harris, 2009b).

정확성과 더불어 아동의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정보제공자의 연령이다.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아동기에 가장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은 부모, 조부모, 선생님과 같은 성인이다. 아동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연령에 따른 지식의 차이를 기대하게 된다. 만 4세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인이 아동보다 더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Taylor, Cartwright, & Bowden, 1991), 3세 아동은 성인의 말을 거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인다(고연정, 최영은, 2011, 2013; Jaswal, Croft, Setia, & Cole, 2010). 성장 초기 성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령은 신뢰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령과 정확성 요인이 상반될 때에 아동은 어떤 선택을 보일까?

Jaswal과 Neely(2006)는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의 만 3-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네 가지 조건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보제공자는 또래 아동과 성인이었으며 또래 아동이 정확하고 성인이 부정확한 조건, 또래 아동이 부

정확하고 성인이 정확한 조건, 두 명의 정보 제공자 모두 정확한 조건과 정확하지 않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각 정보제공자가 조건에 따라 친숙한 물건을 정확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명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동이 정보제공자의 정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두 정보제공자가 새로운 물건의 명칭으로 서로 다른 단어를 제안할 때 어떤 단어를 물건의 명칭으로 선택하는지 관찰하였다. 아동들은 성인과 또래 아동 정보제공자 모두 정확하지 않은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우연에 준하는 수행을 보였으나 성인 정보제공자가 제안한 명칭을 또래 아동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명칭보다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두 정보제공자 모두 정확한 조건에서는 성인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명칭을 선택하는 비율이 우연 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나 또래 아동과 성인을 비교하였을 때 아동은 연령이 더 높은 성인을 보다 신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명의 정보제공자 중 한 명은 정확하고 다른 한 명은 정확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아동들은 성인 정보제공자가 정확하고 또래 정보제공자가 부정확하였을 때에는 여전히 성인 정보제공자를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성인 정보제공자가 부정확하고 또래 정보제공자가 정확하였을 때에는 또래 정보제공자를 보다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과거의 정확성에 기반을 둔 선택으로 아동들은 성인의 신뢰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 또래 아동보다 성인을 신뢰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성인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동의 선택적 신뢰와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가 모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 문화에서 성장한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환경은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Rogoff, 1993 참조), 문화에 따른 행동 양식의 차이가 관찰되기도 한다. 이는 연구 결과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방에 대한 연구들은 모방 비율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Bond & Smith, 1996; Corriveau & Harris, 2010 등을 참조), 학습 상황에서도 성장한 문화(국가)에 따라 아동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Chan & Tardif, 2013). 따라서 선택적 신뢰 상황에서도 문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한 선택적 신뢰의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Jaswal과 Neely(2006)의 연구 중 연령과 정확성이 대비되는 조건을 재검증하여 문화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정소미, 최영은, 2017). 연구자들은 부정확한 성인과 정확한 또래 아동 정보제공자를 비교하였는데, 연령에 따른 상대적인 지위를 존중하는 한국 문화에서 성장한 4-5세 아동들도 미국 아동들과 같이 연령보다 정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령이 높은 권위적인 존재보다 정확한 또래 아동을 신뢰한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Jaswal & Neely, 2006)에서 3-4세 아동의 수행을 동일하게 보고하였던 것과 달리 한국의 3세 아동의 반응은 4-5세 아동과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다. 정소미와 최영은(2017)이 연구 2에서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자의 정확성에 따른 신뢰 능력을 추가 검증한 결과(성인끼리의 비교), 한국의 3세 남아는 전반적으로 정보제공자의 정확성에 따른 선택적 신뢰

를 어려워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3세 여아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정확성에 따라 정확한 정보제공자를 선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세 여아도 연령 요인과 정확성 요인이 상충되어 성인 정보제공자와 또래 아동 정보제공자를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우연 수준에 그치는 선택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3세 여아들의 경우, 부정확한 성인과 정확한 또래가 대비된 상황에서는 부정확하더라도 성인을 배제하고 또래를 선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제시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정보제공자의 연령이 3세 여아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정확성과 연령 요인이 대비되는 상황에서 미국 아동과 유사하게 정확성에 근거한 선택적 신뢰 양상을 보인 4-5세 아동의 반응은 연령보다 정확성 요인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예측했던 것과 달리 단어 학습 과제 상황에서 정보제공자의 연령은 4-5세 아동에게 중요도를 갖는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 시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신뢰 선호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Jaswal과 Neely(2006)의 연구에서는 정보제공자의 연령과 정확성에 따라 조건을 네 가지로 나누어 아동의 수행을 살펴보았으나 정소미와 최영은(2017)의 연구에서는 정보제공자의 연령과 정확성이 대비되는 네 가지 조건 중 부정확한 성인과 정확한 또래 아동을 비교하는 조건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한국 4-5세 아동의 반응에 대한 해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 한국의 4-5세 아동의 반응은 성인보다

또래 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정소미와 최영은(2017)의 연구에서 관찰된 한국 아동에게서 나타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른 문화권에서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선택적 신뢰의 발달 패턴을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한국적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의 선택적 신뢰 능력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선택적 신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정립하고 다른 문화권 국가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아동들이 선택적 신뢰 상황에서 정보제공자의 여러 특성 중 성별, 연령과 지위의 세 요인을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정보제공자의 신뢰성 판단 및 선택적 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세 아동과 4-5세 아동의 수행의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으나 (Corriveau, & Harris, 2009a; Koenig, Clement, & Harris, 2004), 대부분 3-5세 아동 사이에 유사한 반응이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소미와 최영은(2017)에 따르면 한국의 3세 아동은 4-5세와는 선택적 신뢰에서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선호 패턴을 보이는 한국의 만 4,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자의 연령(성인 대 아동), 성별(여성 대 남성), 지위(부모님같은 성인 대 선생님같은 성인)가 다르게 제시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지식을 많이 보유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와 실제로 이름

을 알지 못하는 물건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고자 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정보제공자의 특성에 대한 한국 아동의 일반적인 신뢰 선호 반응을 관찰하였다.

만일 한국의 4-5세 아동이 선행연구의 결과(Jaswal & Neely, 2006)의 성인과 아동 모두 정확한 조건처럼 성인에 대한 선호가 있다면 아동보다는 성인을 보다 믿을만하고 지식을 더 많이 보유한 대상으로 선택할 것이다. 성별 조건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동성 성인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면(Ma & Woolley, 2013; Taylor, 2013), 아동의 성별에 따라 성인의 성별에 대한 선택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남아의 경우 남성 성인을, 여아의 경우 여성 성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성인간의 연령 비교와 지위 비교 조건에서는 한국 아동의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해볼 때 한국 아동들이 선택적 신뢰 상황에서 정보제공자의 연령과 지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연령이 다른 두 성인이 제시될 때에는 연령이 더 높은 성인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고 지위가 비교될 때에는 부모님과 같은 성인보다는 선생님의 지위를 지닌 성인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제공자의 속성을 사진을 통하여 제시하고 두 명의 사진을 대비하여 제시한 상황에서 아동이 어떤 정보제공자가 보다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누구에게 새로운 물체의 이름을 물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여 정보제공자의 상대적인 연령, 성별, 지위의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한국의 만 4-5세 아동에게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관찰하였다. 아동에게 두 번의 질문을 통해 이를 알아본 것은 선행

연구(예, Bascandziew & Harris, 2014)에 근거한 것으로 첫 번째로 질문한 지식 보유와 관련한 질문은 보다 일반적인 아동의 기대를 측정하고자 제시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 제시한 사물 이름을 물을 대상에 대한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선택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시하였다.

실 험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 및 서울과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만 4-5세 아동 32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경기도: 20명, 서울: 4명, 청주: 8명). 분석에 포함된 아동은 만 4세 아동 17명(남아 10명, $M = 53.41$ 개월, $SD = 3.47$ 개월), 만 5세 아동 15명(남아 9명, $M = 66.07$ 개월, $SD = 2.49$ 개월)이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어린이 집과 각 아동의 가정집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는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연구자 소속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실험자극

아동들은 노트북을 통해 인물 사진과 새로운 물건의 사진을 제시받았으며 인물 사진 16장과 새로운 물건의 사진 8장이 실험 자극으로 사용되었다. 인물 사진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사진을 수집하였고 사진의 배경

을 모두 삭제한 뒤 옷차림에서 나타나는 효과 (McDonald & Ma, 2015)를 막기 위해 동일한 남색의 티셔츠를 사진에 합성하였다. 새로운 물건의 사진은 구글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한 독특한 장난감의 사진(Rosenbaum, 2012)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연령(20대와 60대), 성인의 성별, 성인의 지위, 아동과 성인을 비교하는 네 가지 조건에 따라 자극이 구성되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두 인물의 사진이 한 시행으로 제시되었으며 각 조건에서 다른 사진으로 구성된 두 개의 시행을 실시하였다. 아동들은 네 가지 조건에 모두 참여하였다. 따라서 네 조건의 자극을 모두 제시 받아 총 8번의 시행(조건 당 2시행씩)을 수행하였다. 조건 별 사진 자극의 구성과 제시는 아래와 같다.

성인의 연령을 비교하는 조건(제공자-연령 조건)에서는 동일한 성별의 20대 성인과 60대 성인의 사진 쌍들이 자극으로 제시되었다(예, 20대 남성과 60대 남성 비교; 20대 여성과 60대 여성 비교). 성인의 성별을 비교하는 조건(제공자-성별 조건)에서는 4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한 쌍을 이루어 제시되었고 서로 다른 두 쌍의 남녀 사진이 자극으로 사용되었다.

성인의 지위를 비교하는 조건(제공자-지위 조건)의 경우 동일한 성별의 40대 성인 두 명의 사진 두 세트를 자극으로 구성하였으며 한 사람은 선생님과 같은 어른으로, 다른 한 사람은 엄마, 아빠와 같은 어른으로 소개하였다. 아동과 성인을 비교하는 조건(제공자-아동/성인 비교 조건)에서는 동일한 성별의 만 5세 아동과 40대 성인의 사진 두 세트를 자극으로 구성하였다. 성인의 성별을 비교하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조건에서 모두 한 번은 여성의 사진 쌍으로 다른 한 번은 남성의 사진 쌍으로 자극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모든 자극은 옅은 회갈색 화면에 제시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인물 사진 두 장이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났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새로운 물건이 화면 중앙에 제시되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나타났던 인물 사진이 동일한 위치에 다시 제시되었고 화면의 중앙 아래쪽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시되었던 물건이 함께 나타났다. 세 장의 슬라이드가 한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자극의 예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각 조건의 순서와 인물의 좌우 배치 여부에 따라 두 세트의 제시 순서를 구성하였으며 아동은 이 중 한 세



그림 1. 실험에서 자극 제시 방법과 질문 제시의 예

트의 순서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마지막으로 4, 5세 아동에게서 매력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선택적 신뢰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Bascandziew & Harris, 2014)를 참고하여 구성된 자극 쌍들에서 매력도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자극으로 사용된 16장의 인물 사진에 대해 추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매력도 평정을 실시하였다. 순서 세트에 따라 화면에 한 장씩 제시되는 인물 사진을 보고 5점 척도(1점: 전혀 매력적이지 않음, 2점: 매력적이지 않음, 3점: 보통, 4점: 매력적임, 5점: 매우 매력적임)로 각 인물의 매력도를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11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M_{age} = 25.64$, $SD = 2.31$, 여성 9명)이 참여하였다. 사진 쌍을 완전히 역균형화하여 제시할 수 있었던 제공자-지위 비교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조건에서 조건별로 자극으로 제시된 사진 쌍들 사이에 매력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각 인물 사진의 매력도 평균을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통해 조건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보제공자들의 매력도는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F(5, 50)=10.658$, $p < .01$) 사후분석(Bonferroni로 다중비교조정)에서 각 조건 내에서의 쌍을 비교하자 제공자-아동/성인 비교 조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건에서의 비교 쌍들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동/성인 비교 조건에서는 아동 얼굴($M = 3.682$, $SD = 0.462$)을 성인 얼굴($M = 2.818$, $SD = 0.462$)보다 더 매력 있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도 평정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결과 해석 및 논의에서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실험절차

실험은 어린이 집 혹은 가정집의 분리된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개별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어머니는 사례로 주어지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에게 주의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적인 제약으로 32명의 참가 아동 중 2명의 아동이 어머니 곁에서 과제를 수행하였다. 모든 아동은 실험자와 어린이용 책상에 앞에 나란히 앉아 실험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자극을 사용하여 아동의 선택적 신뢰 양상을 관찰하였던 선행연구(McDonald & Ma, 2015)의 실험 1과 2의 절차를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실험은 인물 소개 단계와 새로운 물건 소개 단계, 선택 질문 단계가 한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두 명의 사람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질문에 맞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모든 실험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10-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물 소개 단계

화면에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면 실험자는 좌우의 순서로 각 사람을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성인의 연령 비교 시행에서 20대는 '나이가 많은 언니나 오빠(혹은 누나나 형)'로, 60대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소개하였고, 성인의 성별 비교 시행에서는 여성을 '엄마와 같은 여자 어른', 남성을 '아빠와 같은 남자 어른'이라고 소개하였다. 성인의 지위 비교 시행에서는 한 사람을 '다른 친구의 선생님'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친구의 엄마(아빠)'라고 설명하였다. 또래 아동의 사진

이 나타났을 때에는 ‘oo이와 같은 어린이 친구, 함께 제시된 성인은 ‘엄마, 아빠와 같은 어른’이라고 소개하였다.

두 사람을 소개하고 난 뒤에 실험자는 아동에게 지식의 보유 정도를 묻는 첫 번째 검사 질문을 하였다. 아동은 손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거나 구두로 응답하였고 실험자는 아동의 반응에 중립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검사질문(Knowledge Question) 1: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아는 게 더 많을까?”

새로운 물건 소개 단계

화면 중앙에 새로운 물건을 보여준 뒤에, 아동에게 이 물건을 본 적이 있는지와 이름을 아는지 물어보았다. 아동이 이름을 모른다고 응답하면 실험자는 “이전에 보았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알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만약 아동이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경우에 실험자는 “이름이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까 나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알고 있을 것 같아.”라고 답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 질문 단계

두 명의 인물과 새로운 물건이 모두 제시되는 화면을 보여주고 난 뒤 실험자는 아동에게 두 인물 중 제시된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두 번째 검사 질문을 하였다.

검사질문(Ask Question) 2:

“물건의 이름을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

아동이 반응을 어려워하는 경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름을 알고 있을 것 같아?”, “oo이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 등의 촉진하는 질문을 하였다. 지식 질문과 마찬가지로 아동은 손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거나 구두로 응답하였고, 실험자는 아동의 반응을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반응 코딩

제공자-연령 비교 조건에서 고연령인 60대를 선택하였을 때 1점, 제공자-성별 비교 조건에서 참가 아동과 동일한 성별의 성인을 선택하였을 때 1점, 제공자-지위 비교 조건에서 선생님을 선택하였을 때 1점, 제공자-아동/성인 비교 조건에서는 성인을 선택하였을 때 1점을 부여하였고 각 조건 당 2개의 시행의 반응 값을 평균 내어 아동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은 각 조건에 따른 검사질문 1과 2에 대한 응답점수의 평균 비율이었다. 평균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제공자-연령 비교 조건에서는 60대를, 제공자-성별 비교 조건에서는 참가 아동과 동성의 성인을, 제공자-지위 비교 조건에서는 선생님을, 제공자-아동/성인 비교 조건에서는 성인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 과

각 조건 별로 검사질문 1과 2에 대한 아동의 선택 점수의 평균 비율을 산출하여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사전 분석 결과 실험이 진행된 장소(어린이 집과 가정집)와 자극의 제시 순서에 따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F_s < 1.731, p_s > .19$), 이후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검사질문 1에 대한 선택 반응 분석

검사질문 1은 제시된 두 사람 중에 아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하여 아동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즉, 지식 보유 정도에 대한 아동의 일반적인 기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2에 결과가 요약되어 제시되어 있다.

참가 아동의 성별(남, 여)과 참가 아동의 연령(4세, 5세)을 참가자 간 변인으로, 실험의 각 조건(제공자-연령, 제공자-성별, 제공자-지위, 제공자-아동/성인)을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한 2(참가자성별) x 2(참가자연령) x 4(실험조건) 혼합모델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건($F(3, 81) = 3.767, p < .05$)과 참가자-연령의 주효과($F(1, 27) = 8.757, p < .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건과 참가자-연령($F(3, 81) < 2.511, p = .064$), 조건과 참가자-성별($F(3, 81) < 2.618, p = .057$)의 상호작용 효과가 경계선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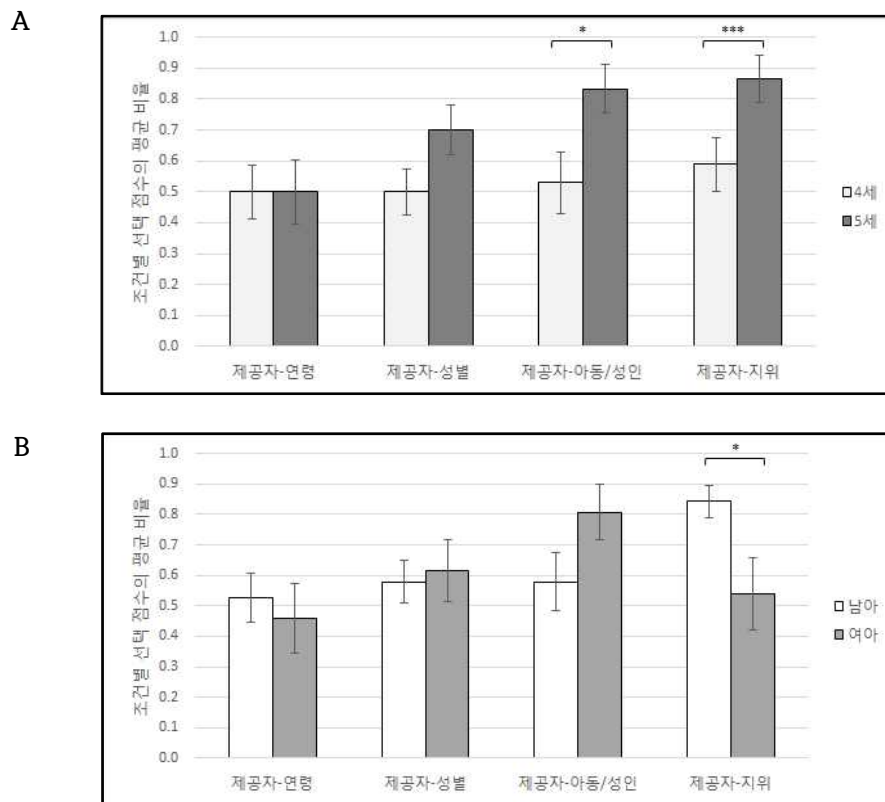


그림 2. 검사질문 1에 대한 선택 점수의 평균. A는 참가자-연령에 따른 조건별 비교, B는 참가자-성별에 따른 조건별 비교 결과를 나타냄. 제공자-연령 조건에서는 60대, 제공자-성별 조건에서는 참가자와 동일한 성별의 성인, 제공자-아동/성인 조건에서는 성인, 제공자-지위 조건에서는 선생님을 선택하였을 때 1점으로 채점됨.

* $p < .05$, *** $p =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_s < 1.86, p_s > .14$). 조건에 따른 주효과를 사후 분석한 결과(Bonferroni), 제공자-연령 조건($M = .50, SD = .35$)은 제공자-아동/성인조건($M = .66, SD = .40$) 및 제공자-지위 조건($M = .74, SD = .34$)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나머지 조건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결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조건에 따른 참가자-연령 간 차이와 참가자-성별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사후 분석(Bonferroni로 다중비교조정)을 실시한 결과, 제공자-아동/성인 조건과 제공자-지위 조건에서 4세 아동과 5세 아동의 선택 비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제공자-아동/성인 조건에서는 5세 아동($M = .82, SD = .32$)이 4세 아동($M = .53, SD = .41$)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성인을 선택하고(Mann-Whitney $U = 74.50, Z = -2.207, p < .05$), 제공자-지위 조건에서는 5세 아동($M = .93, SD = .18$)이 4세($M = .59, SD = .36$)보다 선생님의 지위를 지닌 성인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U = 71.50, Z = -2.379, p = .001$). 또한, 제공자-지위 조건에서 참가자-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아($M = .84, SD = .24$)는 여아($M = .54, SD = .43$)보다 지위에 대하여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U = 74.50, Z = -2.115, p < .05$). 다른 조건에서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U_s > 85.50, p_s > .09$).

추가적으로 조건별 아동의 선택 비율을 우연 수준과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아동의 선택 비율을 우연 수준과 비교한 결과, 제공자-아동/성인 조건($M = .67, SD = .39, t(31) = 2.47, p < .05$)과 제공자-지위 조건($M = .72, SD = .36, t(31) = 3.458, p < .01$)에서 아동의 선택이

우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연령에 따른 아동의 수행을 우연 수준과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4세 아동($p_s > .33$)은 모든 조건에서 우연 수준의 선택 반응을 보인 반면, 5세 아동은 제공자-연령 조건($t(13) = .0, p = 1.0$)을 제외한 세 가지 조건에서 모두 우연 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의 선택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p_s < .05$). 이러한 결과는 4세 아동의 경우 지식을 많이 보유한 대상으로 제시된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특정 기대가 없는데 비하여 5세 아동은 아동보다는 성인이, 부모와 같은 성인보다는 선생님과 같은 성인이, 다른 성별의 성인보다는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성인이 보다 지식을 더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가자-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남아는 제공자-지위 조건에서 우연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지위를 지닌 성인을 선택하였으나($t(18) = 6.245, p < .001$), 다른 조건에서의 선택 반응은 우연과 다르지 않았다($p > .27$). 여아의 경우에는 제공자-아동/성인 조건($M = .81, SD = .33, t(12) = 3.411, p < .01$)에서 우연보다 높은 비율로 성인을 선택하였고 다른 조건에서는 우연 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_s > .27$).

검사질문 2에 대한 선택 반응 분석

검사질문 2는 제시된 두 사람 중에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실제 학습 상황에서 아동이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와 일반적인 지식 정도에 대한 기대가 실제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가 아동의 성별(남, 여)과 연령(4세, 5세)을 참가자 간 변인으로, 실험의 각 조건(제공자-연령, 제공자-성별, 제공자-지위, 제공자-아동/성인)을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한 2(참가자성별) x 2(참가자연령) x 4(실험조건) 혼합 모델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건의 주효과($F(3, 84) = 3.803, p < .05$)와 조건과 참가자-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3, 84) = 4.955, p < .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른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_s < 2.67, p_s > .11$). 조건에 따른 주효과를 사후분석한 결과(Bonferroni), 제공자-연령 조건($M = .41, SD = .39$)은 제공자-

아동/성인조건($M = .69, SD = .40$)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나머지 조건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건에 따른 참가자-연령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분석(Bonferroni로 다중비교 조정)을 실시한 결과, 제공자-아동/성인 조건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U = 68.50, Z = -2.49, p < .05$). 4세 아동($M = .53, SD = .41$) 보다 5세 아동($M = .87, SD = .30$)이 성인을 더 높은 비율로 선택한 것이다. 다른 조건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U_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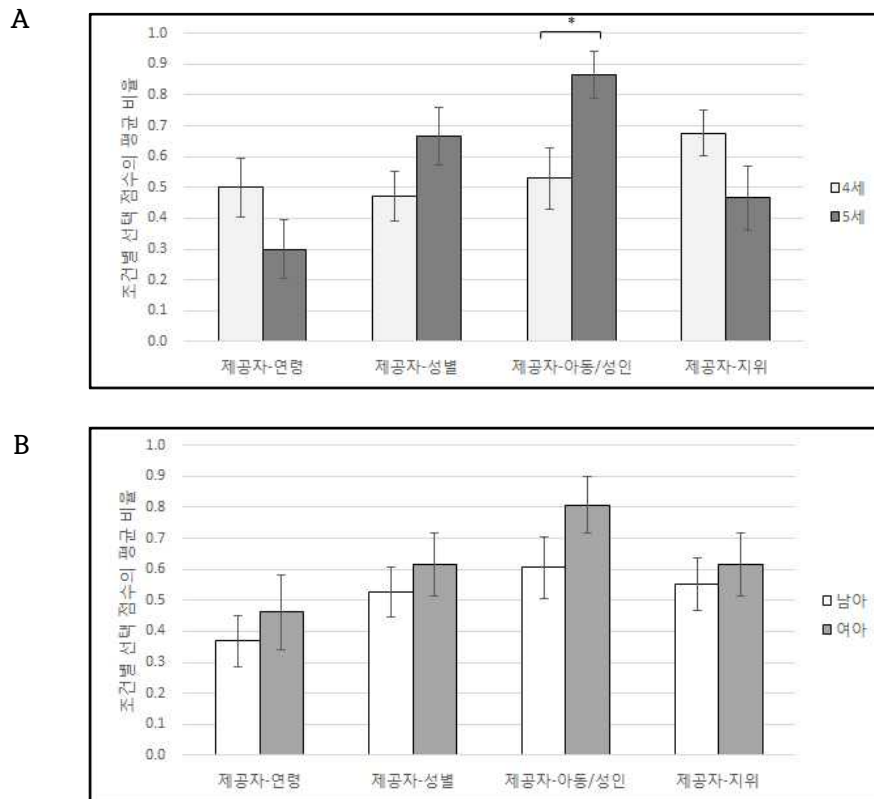


그림 3. 검사질문 2에 대한 선택 점수의 평균. A는 참가자-연령에 따른 조건별 비교, B는 참가자-성별에 따른 조건별 비교 결과를 나타냄. 제공자-연령 조건에서는 60대, 제공자-성별 조건에서는 참가자와 동일한 성별의 성인, 제공자-아동/성인 조건에서는 성인, 제공자-지위 조건에서는 선생님을 선택하였을 때 1점으로 채점됨.

88.50, $p_s > .10$).

추가적으로 조건별 아동의 선택 비율을 우연 수준에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제공자-아동/성인 조건($M = .69, SD = .40, t(31) = 2.675, p < .05$)에서 성인에 대한 선택 비율이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조건들에서의 선택 비율은 우연 수준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p > .18$). 참가자-연령에 따른 수행을 우연수준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만 4세 아동의 경우 제공자-지위 조건($M = .68, SD = .30, t(16) = 2.40, p < .05$)에서 지위에 대한 선택 비율이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조건에서는 우연 수준에 그치는 수행을 보였다($p_s > .71$). 5세 아동의 경우, 제공자-아동/성인 조건($M = .87, SD = .30, t(14) = 4.785, p < .001$)에서 우연 수준 보다 높은 비율로 성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제공자-연령 조건에서는 참가 아동의 선택 비율이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 = .30, SD = .37, t(14) = -2.103, p = .054$).

마지막으로 참가자-성별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였을 때 남아의 선택 비율은 네 가지 조건 모두에서 우연 수준과 다르지 않았으며($p_s > .13$), 여아의 경우 제공자-아동/성인 조건에서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성인을 선택하였으나($M = .81, SD = .33, t(12) = 3.411, p < .01$), 다른 조건에서의 수행은 우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p_s > .2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4-5세 한국 아동의 선택 적 신뢰에서 연령, 성별, 지위가 가지는 의미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연령이나 지위에 따른 존중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권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연령과 지위에 따른 선택적 신뢰를 보이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들에게 연령, 성별, 지위가 다른 8쌍의 사진을 비교-제시한 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아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묻는 검사질문 1을 통하여 정보제공자의 지식 보유 정도에 대한 아동의 일반적인 기대를 살펴보고, 새로운 물건의 이름을 물어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검사질문 2를 통하여 실제적인 학습 상황에서 정보제공자로 선택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실험 결과, 검사질문 1에 대한 아동의 반응 패턴은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만 5세 아동은 제공자-아동/성인 조건에서 4세 아동보다 높은 비율로 아동보다 성인을 선택하였고, 제공자-지위 조건에서는 평범한 성인보다 선생님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연 수준과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만 4세 아동의 경우 제시된 두 인물 중 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선택 선호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5세 아동은 제공자-연령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는 5세 아동이 아동보다는 성인이 이성의 성인보다는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성인이 많은 지식을 보유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동보다는 성인을 신뢰하며 이성보다는 동성의 정보제공자를 선호하여 신뢰함을 보고하였던 선행연구(Jaswal & Neely, 2006; Ma & Woolley, 2013; Taylor, 2013)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인의 지위나 성별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지

위 역시 지식 보유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인들 사이의 연령 차이(예, 20대 성인과 60대 성인)에 있어서는 별다른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의 신뢰 선호를 보여주었던 4-5세 아동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검사질문 1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은 5세에 이르러서야 성인의 성별과 신분, 지위를 지식 보유의 정도를 알려주는 주요 단서로서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선택 반응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의 반응을 비교하자 제공자-지위 조건에서 남아는 여아보다 높은 비율로 지위에 대한 선택 반응을 보였다. 남아의 이러한 수행은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아의 경우 우연 수준에 머무르는 선택 반응을 보여 한국의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지위를 선택적 신뢰의 주요 단서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제공자-아동/성인 조건에서 여아는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성인을 선택한 반면 남아는 우연 수준 정도의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제공자의 지식 보유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남아와 여아가 중요시 여기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아의 경우 성인의 지위 자체를 의미 있는 단서로서 활용하나 남아의 경우에는 성인 간의 상대적으로 지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검사질문 2에서 새로운 물건의 이름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도

록 하였을 때에는 아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검사질문 1을 받았을 때와는 다소 달라진 반응 양상이 나타났다. 아동과 성인을 비교하는 조건(제공자-아동/성인 조건)에서는 검사질문 1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4세 아동보다 5세 아동이 아동보다 성인을 더 선호하는 모습패턴을 보였으며 이러한 선호는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검사질문 1에서 우연 수준에 머무르는 선택 반응을 보여주었던 4세 아동이 제공자-지위 조건에서 우연보다 유의하게 높은 선호를 보였고 5세 아동의 경우 제공자-아동/성인 조건과 더불어 제공자-연령 조건에서 연령이 높은 성인에 대해 보다 높은 선호 반응을 보인 반면 제공자-지위 조건과 제공자-성별 조건에서는 지위가 높거나 동성의 성인에 대한 선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여아의 경우 여전히 제공자-아동/성인에서 성인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으나 선생님의 지위에 대한 남아의 선호는 우연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지식 보유에 대한 선택 질문인 검사질문 1과 달리 실질적으로 물체의 이름을 누구에게 묻겠냐는 검사질문 2에서 다소 달라진 아동의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한 가지 가능성은 실험 진행 과정에서 유사한 질문이 반복된 것에 의해 선택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과 유사하게 주로 선호 질문(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은지)과 선택 질문(누가 선택한 이름이 맞다고 생각하는지)을 연속하여 제시하였고, 두 질문에 대한 응답 사이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예를 들어, Corriveau, Kinzler, & Harris, 2013; Elashi & Mills, 2014). 그러나 유사한 맥락의 질문을 연

속하여 물어보는 상황 자체가 아동에게는 반응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검사질문 1에 대한 응답과 방향성이 다소 반대의 응답 패턴이 검사 질문 2에서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다른 질문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검사질문 1의 결과에 비해 두 번째 제시된 검사질문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한적이어야 하고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질문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재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아동이 연구자의 의도와는 다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반응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검사질문 1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검사질문 2의 경우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검사질문 2는 잠재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아동들이 다른 요소에 초점을 두어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식 보유 정도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정보제공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아동들이 평소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체의 이름을 배운 경험이 많은지, 누가 덜 무서운지, 누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지, 누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해 줄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반응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누구에게 물을까'를 선택하기보다 실제 사물의 이름을 선택(정소미, 최영은 2017 참조)하도록 하는 실험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재검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선택 반응에 간접적으로 매력도가 영향을 끼쳤을 지를 확인해보

고자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 사진에 대한 매력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연령이 어린 정보제공자를 매력 있게 판단한 경향이 나타났고, 제공자-아동/성인 조건에서는 아동을 성인보다 훨씬 더 매력 있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력도 평정의 결과는 아동의 선택적 신뢰반응과는 그 방향성이 반대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편향을 뛰어넘는 선호라고 볼 수 있으며 매력도와 정확성을 대비하였던 선행연구(Bascandziev & Harris, 2016)에서 4, 5세 아동이 정보제공자의 정확성에 따른 선택적 신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력도에 편향된 결과를 보고하였음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매력도 평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확인한 것이고, 참가 아동이 직접 매력도를 평정한 것을 반영하지는 못하였기에 매력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웠고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직 한계가 크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또래 아동을 성인에 비해 더 매력적으로 판단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매력도와 지식 보유 정도가 상충할 때의 선택적 신뢰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지식 보유 정도에 대한 판단이나 관련 지식 문기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맥락에서는 상대적으로 4세 보다는 5세에 이르러야 정보제공자의 특성에 따른 선택적 신뢰를 보이며 성별에 따라 발달의 양상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발달과 더불어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서구에서

이뤄졌던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한국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만 5세 아동의 경우 선생님의 지위를 가진 성인을 더 선호하거나 아동보다 성인을 더 선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보제공자의 연령 정보와 같은 요인이 학습 상황의 선택적 신뢰에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소미와 최영은(2017)의 연구에서 주 대상으로 하였던 3-4세 아동이 연령과 지위에 대해 인식을 발달시키고 이에 기반한 문화적 영향을 받기에는 아직 어린 연령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 5세 아동이 지식의 제공 대상으로 또래 아동보다 성인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는 선행연구(Jaswal & Neely, 2006)의 실험 조건 중 부정확한 성인과 정확한 또래 아동을 비교하는 조건만을 수행 하였던 연구 1의 4-5세 아동의 결과가 정확성에 따른 선택적 신뢰가 아닌 또래 아동에 대한 선호에 의한 것은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선택적 신뢰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보제공자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 아동의 선택적 신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정립하고 선행연구의 일반화 가능성과 기존 자료의 해석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령, 성별, 지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4-5세 아동의 선호 반응을 분석한 결과, 4세와 5세 사이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이러한 반응은 성별에 따라 양상이 다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적 신뢰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정보제공자의 상대적 지위가 남아들 사이에서 보다 활용되었다는 점은 발달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다른 사회화 과정을 시사함과 동시에 생존번식에서 상대적 위계가 중시되는 남성 집단의 속성(de Waal, 1993; Berk, 2013에서 재인용)이 문화적 요인과 다른 상호작용을 하였을 가능성도 시사하는 흥미로운 결과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속단하기에는 매우 이르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성별에 따른 발달의 차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 아동들의 정보제공자의 특성에 따른 선택적 신뢰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연령과 성별에 대한 차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다. 비록 한국 사회는 빠르게 개인주의화로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문화권 중의 하나이다. 특히, 연령이 높은 성인을 존중하고 지위에 따라 권위와 존경의 정도를 달리하며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집단 내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5세 무렵 아동의 지식 보유 관련 선택 신뢰상황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어 선택적 신뢰와 같은 인지 발달 과정에서 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작동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령을 포함한 정보제공자의 여러 특성에 대한 아동의 신뢰 반응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국 아동의 선택적 신뢰 능력에 대한 추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연정, 최영은 (2011). 만 3-4세 아동의 신뢰성 판단에 관찰 경험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51-162.
- 고연정, 최영은 (2013). 만 3세 아동의 타인 증언신뢰 편향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197-214.
- 정소미, 최영은 (2017). 한국 아동의 신뢰성 판단에 정보제공자의 연령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3), 67-82
- 최영은 (2016). 의심의 기술 발달: 선택적 신뢰와 증거성 추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1), 63-82.
- Bascandziev, I., & Harris, P. L. (2014). In beauty we trust: Children prefer information from more attractive informan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2(1), 94-99.
- Bascandziev, I., & Harris, P. L. (2016). The beautiful and the accurate: Are children's selective trust decisions biased?.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52, 92-105.
- Berk, L. E. (2013). *Child Development*. 8th Edition. Pearson International Edition.
- Birch, S. A., Vauthier, S. A., & Bloom, P. (2008). Three-and four-year-olds spontaneously use others' past performance to guide their learning. *Cognition*, 107(3), 1018-1034.
- Bond, R., & Smith, P. B. (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1952b, 1956) line judg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1), 111.
- Chan, C. C., & Tardif, T. (2013). Knowing better: the role of prior knowledge and culture in trust in testimony. *Developmental Psychology*, 49(3), 591-601.
- Corriveau, K., & Harris, P. L. (2009a). Choosing your informant: Weighing familiarity and recent accuracy. *Developmental science*, 12(3), 426-437.
- Corriveau, K., & Harris, P. L. (2009b). Preschoolers continue to trust a more accurate informant 1 week after exposure to accuracy information. *Developmental science*, 12(1), 188-193.
- Corriveau, K. H., & Harris, P. L. (2010). Preschoolers (sometimes) defer to the majority in making simple perceptual judg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6(2), 437.
- Corriveau, K. H., Kinzler, K. D., & Harris, P. L. (2013). Accuracy trumps accent in children's endorsement of object labels. *Developmental psychology*, 49(3), 470.
- Elashi, F. B., & Mills, C. M. (2014). Do children trust based on group membership or prior accuracy? The role of novel group membership in children's trust deci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28, 88-104.
- Jaswal, V. K., Croft, A. C., Seria, A. R., & Cole, C. A. (2010). Young children have a specific, highly robust bias to trust testimony. *Psychological Science*, 21(10), 1541-1547.
- Jaswal, V. K., & Neely, L. A. (2006). Adults don't always know best preschoolers use past reliability over age when learning new words. *Psychological Science*, 17(9), 757-758.
- Kinzler, K. D., Corriveau, K. H., & Harris, P. L. (2011). Children's selective trust in native-accented speakers. *Developmental science*, 14(1), 106-111.

- Koenig, M. A., Clement, F., & Harris, P. L. (2004). Trust in testimony: Children's use of true and false statement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94-698.
- Koenig, M. A., & Harris, P. L. (2005). Preschoolers mistrust ignorant and inaccurate speakers. *Child development, 76*(6), 1261-1277.
- Koenig, M. A., & Woodward, A. L. (2010). Sensitivity of 24-month-olds to the prior inaccuracy of the source: possible mechanisms. *Developmental psychology, 46*(4), 815.
- Ma, L., & Woolley, J. D. (2013). Young children's sensitivity to speaker gender when learning from other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4*(1), 100-119.
- McDonald, K. P., & Ma, L. (2015). Dress Nicer= Know More? Young Children's Knowledge Attribution and Selective Learning Based on How Others Dress. *PloS one, 10*(12), e0144424.
- Rogoff, B. (1993). Children's guided participation and participatory appropriation in sociocultural activity. In R. Wozniak & K. Fischer (Eds.), *Development in context: Acting and thinking in specific environments* (pp. 121-153). Hillsdale, NJ: Erlbaum.
- Rosenbaum, E. (2012). *TICKLE parts* [Web Post image] Retrieved January 17, 2018 from <https://www.flickr.com/photos/ericrosenbaum/7927153216>
- Shutts, K., Banaji, M. R., & Spelke, E. S. (2010). Social categories guide young children's preferences for novel objects. *Developmental science, 13*(4), 599-610.
- Taylor, M. G. (2013). Gender influences on children's selective trust of adult testimon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5*(4), 672-690.
- Taylor, M., Cartwright, B. S., & Bowden, T. (1991). Perspective taking and theory of mind: Do children predict interpretive diversity as a function of differences in observers' knowledge?. *Child development, 62*(6), 1334-1351.
- 1차원고접수 : 2018. 03. 03.
수정원고접수 : 2018. 03. 30.
최종게재결정 : 2018. 04. 02.

Informants'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selective trust of Korean children

Somi Jeong

Youngon Choi

Chung-Ang University, Psycholog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nts that affect Korean children's selection of a more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with regard to age, gender, and status. Four and five-year-old children were presented with the pictures of two people contrasted in terms of their age, gender, or status. They were then asked who they expected to have more knowledge and which informant they would prefer to ask the name of a novel object. Overall, 5-year-olds selected adults over children, teachers over parents, showing that they consider age and status in their selective trust. By comparison, 4-year-olds were not affected by these characteristics in choosing a knowledgeable informant. Interestingly, while boys selected teachers as a reliable source over parents, girls's selective trust was not affected by the status of the informant, suggesting that status is a characteristic that boys tend to consider at an earlier a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formant's characteristics may affect the development of selective trus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ild's age and gender, and that Korean children's development of selective trust may not follow the same developmental pattern as children studied in the US or Europe.

Key words : selective trust, age, status, development, cultural factor, gender difference